

2020년 경제정책방향

함께 잘사는 2020
경제가 튼튼하다,
내 삶이 나아집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

함께 잘사는 2020
경제가 뚝니다,
내 삶이 나아집니다.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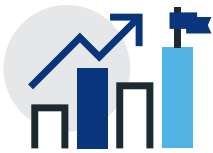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
대응

CONTENTS

경제상황 돌파



01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01
02 소비 촉진과 국내관광 불업으로 경제에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02
03 국민생활·안전을 중심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03
04 수출 분위기 반전! 세계 수출시장에 우뚝 서겠습니다	04
05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05
06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05

혁신동력 강화



01 D.N.A에 중점투자하고 Post-반도체를 육성하겠습니다	06
02 주력산업은 업그레이드,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07
03 서비스산업의 변화가 체감되도록 혁신을 본격화하겠습니다	08
04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을 목표로 혁신생태계의 선순환을 강화하겠습니다	09
05 금융시스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거듭납니다	10

경제체질 개선



01 성과내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1
02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12
0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핵심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겠습니다	13
04 분야별[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정부] 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4

포용기반 확충



01 안성맞춤,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5
02 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6
03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17
04 공정경제를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18

미래 선제대응






01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겠습니다	19
02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03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1
04 남북경협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21

[별첨] 수혜자별 주요내용

01 아동·여성 02 청년·청소년 03 중장년 04 어르신	22
05 서민·취약계층 06 자영업자 07 중소·벤처기업	

01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3대 분야 투자(민간·민자·공공)를 100조원 목표로 발굴·집행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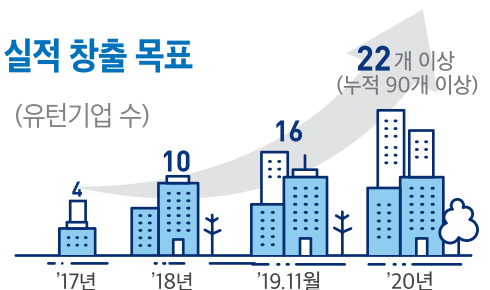
 민간 25조원	<p>▶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4단계* 10조원 투자 + '20년중 15조원 목표로 추가 발굴)</p> <p>*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7조원),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1.3조원),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1.2조원) 등</p>
 민자 15조원	<p>▶ 필수 산업기반시설, 항만 재개발 등 15조원 투자·발굴(5.2조원 집행, 10조원 발굴)</p> <p>▶ 민간의 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되도록 제도 혁신</p> <p>* 민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상향(1~2% → 2~4%, BTO기준) 등 추진</p>
 공공기관 60조원	<p>▶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 등 SOC 기반 확충,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19년 계획 대비 + 5조원)</p>

☑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4.5조원), '투자촉진 세제지원 3종 세트' 등 인센티브 강화

시설자금 등에 정책금융 집중 지원	민간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p>▶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4.5조원)</p> <p>* 중소·중견기업 신·증설투자 자금 지원 * 대출금리 : 최저 1.5%</p> <p>▶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조원)</p> <p>▶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1.5조원)</p> <p>▶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1조원 이상)</p>	<p>① 생산성향상시설 대상 확대 및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대 : '20년, 중소·중견 : ~'21년)</p> <p>* 대상 : 현행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추가</p> <p>* 공제율(대/중견/중소) : (현행)1/3/7 → (개선)2/5/10%</p> <p>②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19말 → '21말)</p> <p>③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6개월 추가 연장('19말 → '20.6말)</p>

☑ (유턴 유치 강화) 역대 최고 수준인 “유턴기업 22개 이상” 실적 창출 목표

-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 마련('20.6월)
- * 산단내 중소·중견기업인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 등 인센티브 방안 포함
- 개정 유턴기업지원법('19.11월)을 활용하여 유턴 유치 활동 강화(유망시장·업종 DB 구축·홍보 등)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 ①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 마련('20.上)
- ② 경자구역 혁신전략 수립('20.上) 및 규제특례 도입
- ③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中企 세제지원 개편방안 마련('20.7월)

02 소비 촉진과 국내관광 불임으로 경제에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 자동차 개소세 인하, 입국장 면세점 확대 등 소비심리 제고

 코리아 세일페스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일정 품목 부가세 환급 검토 ▶ 행사기간 정례화 + 브랜드-K 전시회 등 각종 행사와 연계
 70% 자동차 개소세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노후차 → 신차 교체시 개소세 70% 인하 (경유차로의 교체는 제외, '20.1~'20.6월 한시, 100만원 한도) ▶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최대 400만원) 일몰연장('19말 → '22말)
 ‘소비촉진’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금액 일부 환급 지원 ▶ 휴면재산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7% 할인 제공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연계
 입국장 면세점 내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주요공항(김포 등)으로 확대 + 담배 판매 허용

☑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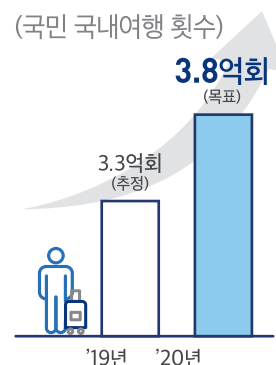
- K-culture 페스티벌(연2회) 개최, 한옥 숙박과 전통문화 체험 패키지화('20년 30개 프로그램) 등 관광객 유치 강화
- 지방공항 연계 항공·숙박권 제공,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상품 지원 등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 적극 유도
- 방한 편의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

* 신남방 국가 비자 편의 확대, 지방공항 환승시 무비자 체류 허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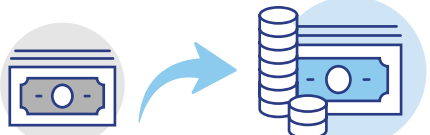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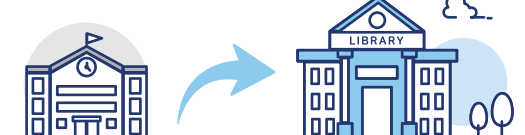
☑ 국민 국내여행 횟수 3.8억회 달성을 위해

-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추진 (국민 국내여행 횟수)
(30%,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100만원)에 포함) 추진
- 국립공원내 가족 단위의 체류형 여가시설(캐빈 등) 확충
- 스포츠클럽 육성(98 → 171개소) 등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
- 지역특화 숙박시설 조성, 관광숙박업 관련 규제 개선
-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4개소, '20.1월) + 문화도시 선정(5곳~10곳)




03 국민생활·안전을 중심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확대

SOC 투자	생활SOC 투자
 <p>'19년 19.8조원 '20년 23.2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A 등 광역교통망 확충 6.0조원 투자 ▶ 노후 SOC 개선에 5.5조원 투자 	 <p>'19년 8.0조원 '20년 10.5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 부담이 큰 복합화사업은 캠코 등을 통한 공공위탁개발을 활용하여 신속 추진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주거복지 로드맵	국유지개발 통해 추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중·소규모 4만호 : 순차적 사업승인 및 착공 ▶ 26만호는 지구계획 수립, 지구지정 완료 등 최대한 조기공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동사업 등을 통해 1만호 연내 조기착공 (최대 7개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지 복합개발 통해 청년·신혼부부 500호+α ('20년) <p><small>* 특히 역세권 등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1인 가구 등에 대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small></p>

☑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 도시재생에 1.7조원('19년 대비 + 0.5조원) 투입, 3년간 총 5조원 이상 투자 추진
-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금리 인하(1.5 → 1.2%)
- 국유재산 활용해 도시재생 추진시 기금 지원, 건축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

💡 도시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



☑ 건설업계 부담 완화 등을 통한 건설업 활성화

- 전문-종합공사간 상호시장 진출 위해 유사전문업종 통합 등 업종 개편('20.6월)
- 공기산정기준 법제화('20.上) 등 공사여건 개선 위한 제도 보완

04 수출 분위기 반전! 세계 수출시장에 우뚝 서겠습니다

☑ “세계 수출규모 6위” 지위 유지, 수출총력 지원체계 강화

- ① 13대 주력 수출품목* ➡ 수출현장 애로 해소방안 마련
3대 수출시장** ➡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19.9월)」이행 가속화


*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전체 수출액의 78% 차지(’18년 기준)
** 주력시장(美·中·日·EU), 전략시장(신남방·신북방), 신흥시장(중남미·중동·아프리카)



②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적극적 대외 진출전략 추진

- ▶ (신남방) RCEP 및 필리핀 양자 FTA 타결 추진, 우리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지원 등
- ▶ (신북방) 쇄빙LNG선 공동건조, 한국기업 산단개발, 10억불 규모 한·러 소부장 공동펀드 조성 등
- ▶ (제3국) 제3국 공동진출 위한 한·중 협력플랫폼 구축, 美와 공동 컨소시엄 구성 추진 등

③ 마케팅 지원 등 수출판로 적극 개척

브랜드-K 확산전략 수립(’20.1분기)	수출바우처 + 해외현지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한류행사 ‘브랜드-K’ 홍보관 설치 ▶ 해외 명절 기간 현지 홈쇼핑에 ‘브랜드-K 특별전’ 편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19년 3,200개사 → ’20년 3,500개사) ▶ 현지 수요 직접 발굴 + 국내기업 매칭 (글로벌 파트너링, ’20년 40회+α) ▶ 「신남방 비즈니스데스크」 등 전담 조직을 활용, 신남방 진출기업 지원

☑ 수출금융 240.5조원 공급(’19년 대비 + 23.5조원)

- 신흥시장 진출 중소기업 7.7조원 지원,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4배 확대(500 → 2,000억원), 수출보험한도 일괄증액 기한연장(’19말 → ’20.3월), 신흥국 수주지원 프로그램 0.8조원 등

☑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활성화

- 서비스수출 금융 확대(’20년 3.4조원, ’19년 대비 + 0.3조원) 및 4대 유망 서비스 산업(관광·보건·콘텐츠·물류)의 수출금융대출금리 우대(최대 0.5%p)
- 해외진출 활성화
 - ①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마련(’20.3월)
 - ②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1,000억원) 조성
 - ③ 수출상담회 확대(K-service) 등

05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지역 혁신산업 육성, 지역 벤처·창업 활성화

- 지역 주도로 지역혁신 성장계획 수립, 多부처 사업 연계 투자 추진
- 지역 벤처·창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 ▶ 지방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19.10월 기준 2,855억원 운용중)
- ▶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산은-지역 중견기업 공동출자) 추가 조성(대구·경북권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제도 재정비



-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제정



- 지방세 감면 연장('19년말 → '22년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 ① 산업기반시설
 - ②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요건 완화
 - ③ 지방 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 지방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물류·관광산업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5.4조원) 본격 착수

- 1.9조원 규모 사업 발주·착공 + 지역특화 산업육성+(총 사업비 1.3조원) 등 R&D도 본격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사업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해 도급 의무화

06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 확장적 재정정책('20년 512.3조원, +9.1%)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역대 최고 수준 조기집행('20년 상반기 62.0% 집행 목표) 추진

☑ 5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철저






- ① 부동산 3대 원칙(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에 따라 안정적 관리
- ② 가계부채 주담대·전세대출 보완 등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
- ③ 금융·외환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관리 철저
- ④ 통상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리스크에 적극 대응
- ⑤ 구조조정 시장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기반 강화

01 D.N.A에 중점투자하고 Post-반도체를 육성하겠습니다

☑ DNA(Data, Network, AI) 투자 + 산업별 5G 활용 확대

Data 	■ 데이터 산업 육성	▶ 데이터 개방 확대(금융, 바이오, 국세정보 등 공공정보) ▶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간 데이터 연계, 거래표준화 방안 마련
	■ 법·제도 정비	▶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 정보보호	▶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개발
5G Network 	■ 5G 결합 신산업·서비스창출	
	■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① 5G 망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장비 구입비 + 공사비도 추가 포함) ②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개편(할당대가 + 전파사용료 통합) ③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
AI 	■ 경쟁력혁신	▶ 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20.上)
	■ AI 활용도제고	▶ AI 관련 교원의 기업 겸직 확대, 전국민 AI소양교육 전면도입



☑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성장 가속 및 유망신산업 활성화

① 시스템 반도체		■ 정부 R&D 1조원 투자('20~'29년) ■ 신성장R&D 세액공제(20~40%) 지원
② 바이오		■ 정부R&D 투자를 '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 5대 추진전략* 분야 선정 및 핵심과제 중점 추진 * ① R&D ② 인재 ③ 제도·규제 ④ 생태계 ⑤ 사업화
③ 미래차		■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확대(50 → 100%)
④ 2차전지		■ 핵심기술 개발(차세대 2차전지 개발('20년 47억원)) ■ 산업 생태계 조성(전기차-이차전지 산업 협업,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 등) ■ 안전성 강화 지원(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150억원) 등)
⑤ 로봇		■ 제조·서비스업 분야에서 협동로봇 활용 확대, 농업생산 자동화, 수술·재활 로봇 도입 등 산업 전반에 로봇 개발·보급 확산 지원

■ BIG3 등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02 주력산업은 업그레이드,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추진 가속

 <p>▶ 스마트공장·산단 보급 확대 * '20년 공장 5,600개, 산단 2개소 신설 ('22년까지 공장 3만개, 산단 10개 보급(누적))</p>	 <p>▶ 친환경 차량·선박, 에너지 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 * 전기차(~'22) 43만대, 수소차(~'30) 85만대 보급</p>
 <p>▶ 제조·서비스 융합 新상품 사업화 촉진(R&D, 공공실증 등)</p>	 <p>▶ 조선·자동차·기계 등 주력업종 P-CBO(채권담보부증권)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1조원 매입</p>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 6대 분야* 100개 핵심전략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 ① 반도체 ② 디스플레이 ③ 자동차 ④ 전기전자 ⑤ 기계·금속 ⑥ 기초화학

▶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총 5조원이상('20~'22년, '20년 1.7조원) 투자,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20년 2.1조원, 연 2조원 이상 투자



■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20개 이상 발굴 목표로 R&D·자금·입지 등 맞춤형 지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 기업을 선정하여 '스타트업 100 → 강소기업 100 → 특화선도기업 100'으로 단계적 성장 지원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지원 대상	유망 창업기업	전문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유
지원 내용	자금 등	R&D, 자금 등	R&D, 자금 등





■ 첨단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세제·금융 등 지원 강화

▶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추가
▶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 보증 프로그램 신설




03 서비스산업의 변화가 체감되도록 혁신을 본격화하겠습니다

☑ 서비스산업 혁신체계 구축 및 제조업 수준의 육성지원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기초 인프라 구축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p>▶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제시(20.6월)</p> <p>* KDI 등 서비스산업 자문단과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와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전망</p> 	<p>▶ 중소기업에 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 신설 및 신속 집행</p> <p>* 150개 기업 대상, 최대 0.6억원</p> <p>▶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업종별 유형 등) 마련(20.3월)</p> <p>▶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 마련(20.6월)</p>	<p>▶ 범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체계 구축</p> <p>▶ 서비스산업 전 분야에 걸친 지원(재정·세제·금융 등) 재점검·개선</p> 

☑ 유망 서비스산업 체감성과 창출 및 핵심규제 혁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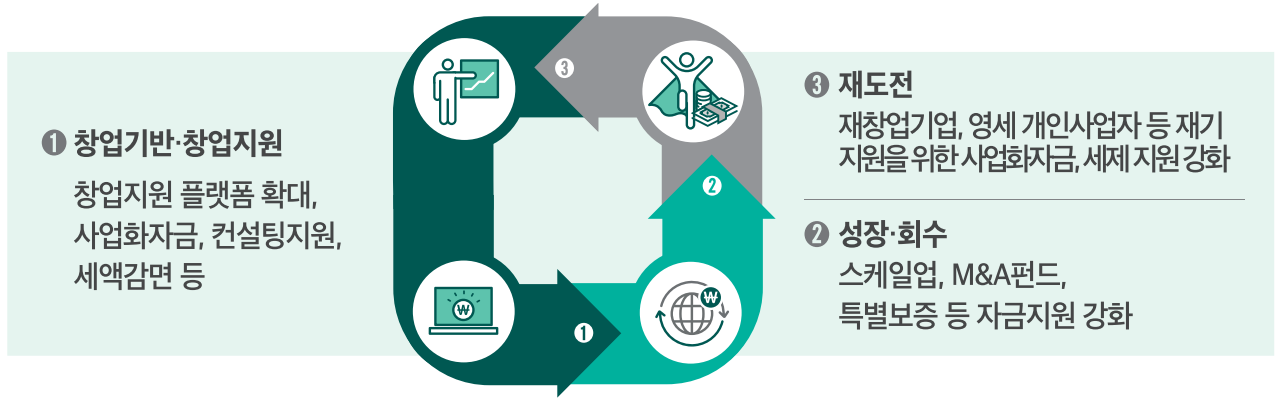
■ 핵심 유망 서비스산업 체감성과 창출 지원

 <p>보건 의료</p>	<p>▶ 지방의료원 신축·보강 등 필수 인프라 확충</p> <p>▶ ICT 활용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제공</p>
 <p>관광</p>	<p>▶ K-pop 전용공연장(서울 아레나 등) 착공 및 차질없는 준공 지원</p> <p>▶ 지역의 전용공연장 추가 확충 방안 마련</p>
 <p>바이오 헬스</p>	<p>▶ 화장품·뷰티의 기술 선진화, 규제혁신, 한류연계 등을 통해 고부가화하는 「K-뷰티 혁신전략」 마련(20.下)</p> <p>*예 : (화장품)신기술 R&D 강화, 규제개선, 대규모 박람회 신설 등 (뷰티) K-뷰티 홍보관 운영, 이마용 규제개선, 한류 플랫폼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p>

■ 서비스산업 핵심규제 혁파

 <p>산림휴양관광</p>	<p>▶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창출 * 예 : 하동 알프스 산악열차(민간투자 약 1,500억원) 등 대기중인 프로젝트 지원</p> <p>▶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 도입을 위한 법 제정 검토</p>
 <p>보건</p>	<p>▶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및 보호방안 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수립 * 개인 사전동의 없이도 가명처리하여 통계조사·연구 등에 활용 가능</p>

04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을 목표로 혁신생태계의 선순환을 강화하겠습니다



☑ (창업기반·창업지원) 제2 벤처창업붐이 확산되도록 혁신창업지원 대폭 강화

- 창업지원 공간 확대 * 메이커 스페이스 + 64개소('20년 총 191개소), 스타트업 파크 2개소 신규 구축, 'FRONT 1'(마포 청년혁신타운) 개소 등
-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컨설팅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 추가

☑ (성장·회수) “유니콘” 도약을 위한 스케일업, 판로개척 중점지원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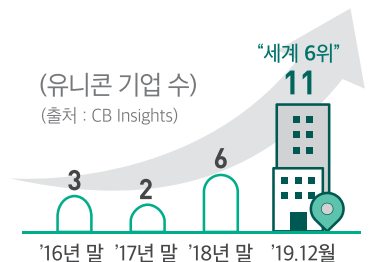
- ▶ 스케일업 펀드(3.2조원 규모)를 조성, 대규모 자금공급
- ▶ ‘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기보, 2,000억원, 기업당 최대 100억원) 신설
- ▶ ‘혁신 아이콘 기업 지원프로그램’(신보, 1,000억원, 기업당 최대 100억원) 신설

💡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불
(약 1조원)을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 예비유니콘·혁신 창업기업의 판로개척, 해외진출 지원

- ▶ 예비유니콘의 신시장 개척 전략수립·실행 지원(40개사, 총 120억원)
- ▶ 정부·공공기관에 「혁신제품 구매 목표제」 도입,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 ▶ 해외 엑셀러레이팅사업 고도화를 통해 현지 생태계 정착 지원
- ▶ 해외거점 중심으로 스타트업 해외지원 패키지 지원확대
(‘19년 200개사 → ‘20년 500개사)




☑ (재도전) 재도전 지원을 통해 실패경험의 자산화

- 재창업 기업의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민간기관 투자연계 사업화 지원, 크라우드펀딩 통한 지원 등)
- 연체 휴·폐업자에게 「자영업자¹²³ 재기 패키지」로 채무조정·재기자금·컨설팅 등 지원
- 폐업희망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방안 마련('20.3월)

05 금융시스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거듭납니다

☑ 여신심사 시스템을 미래성장성·기술력 중심으로 전면 혁신


재무 중심 → 기술과 성장성



-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대형은행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
-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를 3조원 수준('20년말 잔액, IP 포함)까지 확대
 - ▶ 일괄담보제도 도입
 - ▶ 인센티브 제공(은행권 기술금융평가 반영, 온렌딩 차등적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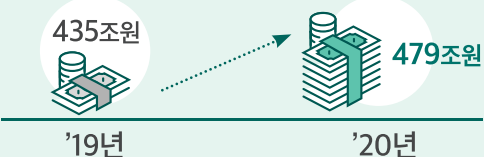
☑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 초대형 IB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
 - ▶ 벤처·중소 투자시 자본규제 완화,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 대출 제외 등
- 사모펀드 규제혁신 입법 추진
 - ▶ 사모펀드 운영체계 일원화, PEF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



☑ 중소·벤처·혁신분야 등에 대해 정책금융 479조원 공급

435조원 → 479조원



- 정책금융을 최대 479조원까지(+ 43.3조원) 확대하여 활력·혁신분야 집중 지원
 - ▶ 중소중견기업 + 20조원
 - ▶ 혁신성장분야 + 6조원

- | | |
|------------------|---|
| ■ 미래기술 육성자금 | ▶ 미래신기술 분야 및 8대 핵심선도사업 등을 영위 중인 3~10년 미만 중소벤처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등 지원(3,000억원 신설, 중진공) |
| ■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 ▶ 대학·연구소의 이공계 교수, 연구원 등의 기술혁신창업 지원('19년 2,040 → '20년 2,300억원, 기보) |
| ■ 4차 산업혁명 지원프로그램 | ▶ 4차 산업혁명 연관사업 및 D.N.A + BIG3 분야 기업 등에 대해 보증비율, 보증료 우대지원('19년 7,200 → '20년 8,000억원, 기보) |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20.上)

-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01 성과내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한걸음 모델(가칭)’ 구축으로 핵심규제 혁파



① (규제선정) 신시장 확대 등 파급력 큰 ‘핵심규제’에 역량 집중

② (의견수렴) 규제 특성 맞춤형 사회적 대화채널 구축·활용



해커톤방식이란?

이해관계·전문가 등과의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안 도출
→ 이해관계자가 특정되고, 전문성 높은 과제에 적합



국민참여방식이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사 확인 후 개선방안 마련
→ 토론 곤란, 일반국민 관심·이해도 높은 과제에 적합

③ (사회적 타협) 사안에 따라 ‘상생혁신기금(가칭)’, 이익공유 협약체결, 협동조합 결성, 규제샌드박스 등 협의수단 선택적 활용

☑ 규제샌드박스 질적 업그레이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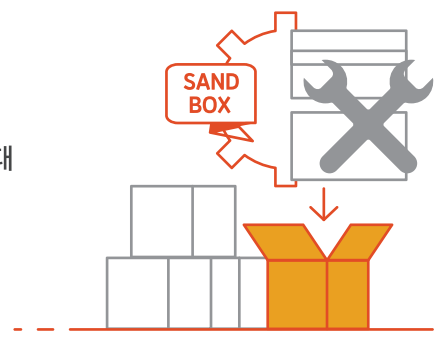
■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200건 이상 창출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기업 성장프로그램 도입

- ① (비용) 실증특례비(최대 12천만원) + 책임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 ② (세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③ (특허) 규제샌드박스 신청 승인 기업 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 규제샌드박스 지속적 내실화

- ①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는 선제적 법령정비 추진
- ②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 마련('20.1월)





☑ 현장 제기 규제(big issue 규제 + small ball 규제) 획기적 혁파에 총력

■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 검토 추진

* 예시 : ① 바이오헬스 ② 금융 ③ 공유경제 ④ 신산업 ⑤ 관광 영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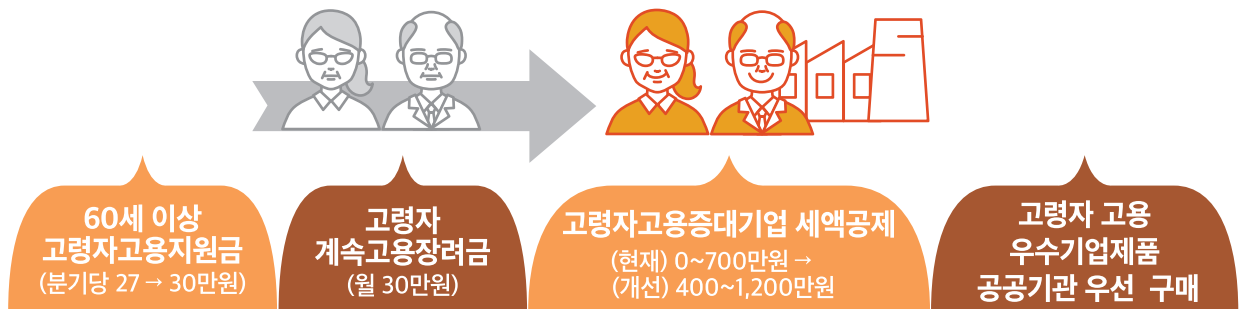
02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 (생산성 향상) 생산성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발표('20.上)	생산성 혁신을 위한 기본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② 인적자본 투자와 일하는 방식 혁신 ③ 지식·정보 투자 다변화 및 혁신생태계 육성 ④ 경제 및 사회시스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② 스마트공장 확산 기반 마련

☑ (경제활동인구 유지) 경제활동인구 총량 유지를 위한 정책마련

- (고령자) ① 기업 고용부담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 마련('20.上, 연구용역 추진)
- ②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 ③ 근로소득 등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제도 개선 등 고령자 근로유인 강화



■ (여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 ①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0.2월) 및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 개선
- ②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확대('19년 월 60 → '20년 월 80만원)
- ③ 맞춤형 진로 취업설계(경력이음서비스) 인력확충('19년 10명 → '20년 20명) 및
새일센터 지원확충(경력단절 예방기관 확대, 창업지원인력 확충)



■ (외국인) 외국인 전문 숙련·인력 유치 강화

▶ 우수외국인력 유치 위한 비자제도 개선

- ① 창업우수인재 비자취득 절차 간소화
- ②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활동 허용 등

▶ 숙련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 ① 성실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 ②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숙련인력 전환규모 확대 등



0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핵심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겠습니다

☑ (R&D) 차세대·5G 기반 첨단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지원하고, 고난도·도전적 R&D 확대 등을 통해 생산적 R&D 생태계를 조성

* 소재·부품·장비 핵심원천기술에 '20~'22년 총 5조원 이상('20년 1.7조원) 투자

☑ (혁신인재) D.N.A 등 첨단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인재 20만명” 육성



▶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핵심 전문 인력 양성

- ① AI 대학원 확대 ('19년 누적 5개 → '20년 누적 8개)
- ②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본격 운영('19.12월 부터, '20년까지 750명 선발)
- ③ SW 중심대학 운영('20년 40개)



▶ 초중고 교육혁신 및 대학 혁신연구 역량 기반 강화

- ① 전국 초중고 Wi-Fi 망설치(학교당 최소 4교실)
- ② 초중등 SW 교육 필수화
- ③ 4단계 BK21사업 등 산학협력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

☑ (노동안전망)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직무변화에 대한 안전망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호 강화

- ①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 ('20년)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21년) 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등 검토
- ② 저소득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과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인 산재보험료 경감 추진

💡 플랫폼 노동자란?

스마트폰 앱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배달 대행, 대리운전 등 업무수행을 요청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



▶ 공정한 계약관행 형성을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보완 및 확산

*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대출·신용카드회원모집인, SW개발자, 웹툰작가 등



▶ 지속적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 학습기반 확충

- ① 평생학습계좌 자동 연계 확대
- ②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04 분야별[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 정부] 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노동분야) 고용안정성 강화 노력 지속과 임금제도·근로시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 (재정분야) 지출구조 효율화, 재정 누수·낭비 방지, 재정건전성 유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공공기관분야)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을 통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성·생산성 중심으로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 (정부분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19.10월)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체감성과 조기창출*

* 국고보조금 맞춤형 안내서비스 시범실시(‘20.12월), 스마트폰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확대(‘20말 100 → ‘21말 300종), 범정부 10대 생애주기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20.7월)

01 안성맞춤, 수요일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확대

대상	지원	'19년	'20년
 청년	고교취업연계장려금	300만원 지원	400만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장학금	0.9만명 지원	1.12만명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만명 지원	29만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5만명 지원	34.2만명 지원
 중년	취업성공패키지 II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35~69세) 포함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	-	연 100만원 (세무·회계 등)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5천명 지원	5천명 지원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5천명 지원	6천명 지원
 어르신	노인일자리	61만명 지원	74만명 지원

☑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의 고용활력을 위해 40대에 특화된 일자리 지원 강화

- 40대 고용 실태에 대한 현장중심의 종합분석을 통해 40대 고용대책 마련('20.1분기)

☑ 다원화되는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산업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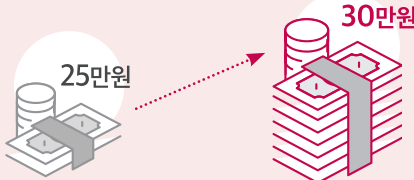

- 돌봄·건강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5만개 신규 확충
- 사회서비스 산업 종합지원

- ▶ (시장창출) 사회보험·의료급여 대상 확대(돌봄기기 등)
- ▶ (R&D) 노인·장애인 등의 독립적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 R&D 확대
- ▶ (인력양성)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마련('20.下)

02 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노인·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강화





노인 - 기초연금	노인 - 공익활동형 일자리
 <p>25만원 → 30만원</p> <p>▶ 소득하위 40% 까지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 → 30만원)</p>	 <p>▶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 기간 연장(9 → 10~12개월)</p>
소득 1분위 등 저소득층 지원 강화	
<p>▶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제외 등)</p> <p>▶ 기초생보 소득인정액 계산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근로소득 공제(30%) 적용</p>	<p>▶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 인상(3 → 10만원)</p> <p>▶ 생계급여 수급청년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소득요건 대폭 완화 (중위소득 20~30% → 30% 이하)</p>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

	<p>▶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의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중위소득의 100%(18~34세는 소득무관) 이하 구직자 :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p>▶ 4대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p>
---	--

03 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 필수 생계비 경감으로 살림살이 개선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뜰폰 활성화(통신망 임차료 인하 등) ▶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유도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 의료기관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확대(근로장학금 인상 및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등)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2 → 2.0%) ▶ 고교 무상교육 확대('20년 고2·고3, '21년 전 학년)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 효율화(공가율 감소 등) ▶ HUG 전세보증보험 공급규모 추가 확대('19년 30조원)

☑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역할 강화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융취약계층 보호	연체차주 신용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살론17 확대 (4 → 5천억원,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 햇살론youth 신규출시 ('20년 1천억원, 미취업청년·대학생 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피해구제 등 추진 ▶ 보험약관 제도개선 및 대출 등 요구서류 일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등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 상권 활성화 및 신규시장 진출 지원 강화

- 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구도심 상권을 복합공간으로 조성, 누계 7 → 13곳)
- ② 지역사랑상품권(2.3 → 3.0조원) 및 온누리상품권(2.2 → 2.5조원) 확대
- ③ 우수제품 온라인 홍보인력 양성(200 → 500명) 및 콘텐츠 제작지원(100 → 1,000개사)

■ 금융·세제 지원 확대

-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상 특별금리 대출 확대(2.3 → 2.7조원)
- ②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연장('19년말 → '21년말)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소상공인 혁신기술 도입 지원

(성장촉진자금 1,000억원 신설 등)



04 공정경제를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거래관행 개선 및 감시체계 강화



- 불공정행위 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중기중앙회 조정협의권 부여 등)
- 하도금·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업종 지속 확대(6 → 12개)

☑ 상생 협력기반 강화 및 사례 창출



-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 확대(58 → 133개)
- 공정문화 모범기관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유도
-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업종단위 노사협력 우수사례 창출
- 상생형 지역일자리 3곳 이상 추가 창출
- 나눔의 기부문화 정착 유도(이월 기부금 법인세 우선 공제 등)

☑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 온라인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SNS 플랫폼 사업자 법상 의무 이행여부 점검, 구독경제 환불 등 계약조건을 소비자친화적으로 개선 등)
- 보육 관련 주요 정보(어린이집 평가 정보 등)를 '행복드림'을 통해 통합 제공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사회적경제 핵심인프라 확충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체계) 부처 소관 지원기관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통합·연계 ▶ (금융)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유관기관 제공 추진('20.下) ▶ (인재) 해외봉사단 사업가 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사업모델 육성 (수요자 중심의 공동 돌봄 협동조합, 지역 재생사업 등) ▶ 판로지원(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공표 확대 등)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플랫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추가 구축(신규 3개 추진 예정)

01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겠습니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대책 마련

■ 주거·출산·보육 등 종합적 지원

주거		▶ 행복주택 등 공적임대주택(5.2만호) 및 신혼희망타운(1.5만호) 확대
출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월 50만원, 3개월 지급)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보육		▶ 국공립(550개소)·직장(80개소) 어린이집 확충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483 → 690개소) 등 ▶ 온종일 초등돌봄교실(13,910 → 14,610실) 및 다함께돌봄센터(167 → 567개소) 확충

■ 고령화 대응 정책노력 지속

- ▶ 고령자 계속 고용 활성화,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 확대 등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 발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5개년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으로 기간별 추진과제, 필요 자원 규모 등 포함



☑ “고령·1인 가구” 여건 개선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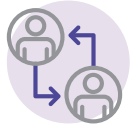
-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주거·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20.2분기)
-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 ▶ 소형(1~2인) 가구 대상면적 공급 확대 추진
 - ▶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확대
-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60 → 55세 이상)
- 고령친화 신산업창출 전략 수립



02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수립('20.上)

▶ 다같이
행복한
개인의 삶



▶ 서로 돌보는
공동체와
사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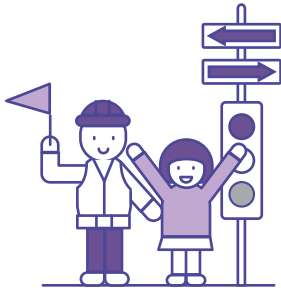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와 통합하여 수립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안전 강화와 불편 해소

국민생명 지키기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 ▶ [교통] '22년 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20년 1,500대)·신호등 설치('20년 2,200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과속방지턱 설치
대상지역 확대(351 → 530개소)
- ▶ [산재] 고위험사업장 안전시설 지원 확대(9,000 → 11,900개소)
- ▶ [자살] 응급실내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 확충(143 → 307명)

재난·재해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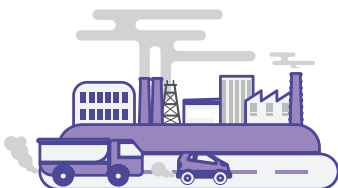
■ 풍수해 대비 인프라 투자

- ▶ 재해발생 위험 지역 지속정비(462 → 543개소)
-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국고지원 2배 인상(25% → 50%)

■ 대형·복합재난 대비 전국 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원

- ▶ 소방 국가직화 추진에 따른 소방 현장인력 확충(5.6만명 → 6.0만명)
- ▶ 대용량 유류저장탱크 화재 대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미세먼지 등 관리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공동연구 확대 등)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 노력 강화

- ▶ 총량관리 지역 추가(3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외 노후차 교체시에도 개소세 인하(△70%)

■ 주요 수입폐기물의 국내산 대체 등 관리 강화

* 석탄재 매립부담금 상향 및 재활용시 감면혜택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관리 강화, 생활계 폐플라스틱 생산·분리·수거 전과정 개선 등

03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20년, '17년 대비 △2.5% 감축) 및 효율적 감축 방안 마련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8.7) : '30년, '17년 대비 △24.4%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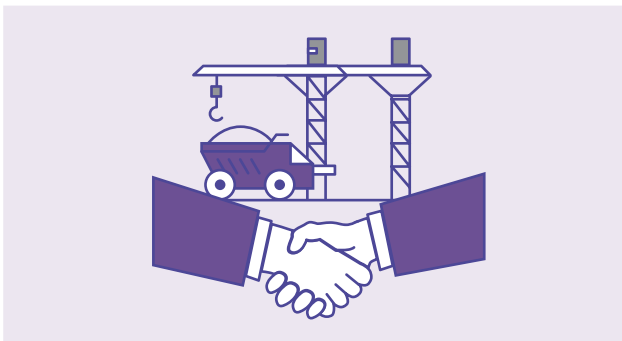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20.6월)	
제3차('21~'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개선 방안	① 배출자 책임강화 ②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개선방안 예시	
할당 총량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설정
할당 방식	유상할당 비율 확대(3 → 10% 이상)
시장 기능	제3자 참여확대 파생상품 도입

이행 점검 · 평가 체계 구축	
평가	부처별 연간 목표수립 및 이해평가 → 총괄보고서 마련
공개	녹색위 보고 및 대국민 공개
발표 시기	(현행) 배출실적산정 후 확정통계발표(약 20개월 소요) → (개선) 확정통계 외 잠정통계발표 (약 4개월 소요)



04 남북경협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에 선제적 준비



-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경험본격화에 착실히 대비



- 북한 국제경제 질서 편입 지원
(인적교류, 경제 인프라 지원 등) 및
평화경제 공감대 확산 노력

2020년, 내 삶은 어떻게 나아지나요?

아동·여성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2020 경제정책방향

- 01 육아휴직 제도개선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 02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 03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도 눈치보지 마세요
- 04 아이들 하교 후 즐겁고 안전한 '온종일 돌봄'이 확산됩니다
- 05 내 아이 등하굣길이 안전해집니다

청년·청소년



청년의 미래를 밝히는 2020 경제정책방향

- 01 장학금은 늘어나고 학자금 대출부담은 낮아집니다
- 02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고졸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 03 중소기업이 청년을, 청년이 중소기업을 원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게 보탬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걱정 없는 2020 경제정책방향

- 01 중장년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02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현장중심의 종합분석을 통해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르신



100세 시대의 든든한 동반자 2020 경제정책방향

- 01 나이는 숫자일뿐! 어르신 채용 확대, 정부가 함께합니다
- 02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늘어납니다
- 03 돌봄서비스 사업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04 어르신들의 금전적 어려움도 덜어드립니다

서민·취약계층



일자리·생계비 걱정 없는 2020 경제정책방향

- 01 일자리 구하기가 힘드십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 02 열심히 일하는 당신, 정부가 함께합니다
- 03 신용등급이 낮아도, 일자리가 없어도 햇살론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우세요
- 04 통신, 교육, 주거 등 필수생계비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2020 경제정책방향

- 01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늘어납니다
- 02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을 살립니다
- 03 지금은 온라인 시대! 온라인 판로를 열어드립니다
- 04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을 육성합니다

중소·벤처



창업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2020 경제정책방향

- 01 혁신기업 창업,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 02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 03 해외진출에 도전하는 창업가를 응원합니다
- 04 재기를 꿈꾸는 벤처사업가를 도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2020 경제정책방향

☑ 육아휴직 제도개선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 ▶ 부부 공동 양육 시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20.2월 시행)
- ▶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절반은 휴직기간 중 미리 지급('20.上)
- ▶ 복직 후에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전부 수령 가능



- * (현재) 급여의 25%를 복직한 다음 6개월 후에 지급
→ (개선) 복직 6개월 이전이라도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사후지급금 100% 지급
- ▶ 한부모 가구도 양부모 가구와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 수령 가능

☑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 맞춤형 진로·취업 설계(경력이음서비스) 상담인력 확충(10 → 20명),
새일센터 역할 강화(창업지원 인력 30 → 40명, 경력단절예방 지원기관 35 → 60개소)

☑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도 눈치보지 마세요

- 4시 이후에도 아이를 마음껏 맡길 수 있도록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 (현행) 맞춤반(09:00~15:00, 0~2세) 및 종일반(07:30~19:30)으로 운영
→ (개선) 기본보육(~16시)과 필요 시 제공되는 연장보육(16시 이후)으로 구분

- 기본교육(4시 이전)과 별도로 연장보육(4시 이후) 보육료를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 아이들 하교 후 즐겁고 안전한 '온종일 돌봄'이 확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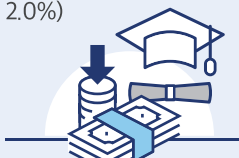
온종일 돌봄 인프라	대상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 돌봄교실 + 700실↑ (‘19년 13,910 → ’20년 14,610실) ▶ 지역 공동체의 다함께돌봄센터 + 400개소↑ (‘19년 167 → ’20년 56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대상 단계적 확대 (초등 1, 2학년 위주 → 전 학년) ▶ 운영시간도 단계적으로 연장

☑ 내 아이 등하굣길이 안전해집니다

-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 '20년 단속카메라 1,500대, 신호등 2,200대
- 안전표지·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역 179개 확대
(‘19년 351 → ’20년 530개소)

청년의 미래를 밝히는 2020 경제정책방향

장학금은 늘어나고 학자금 대출부담은 낮아집니다

근로장학제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학금 시급↑ (교내) 8,350 → 9,000원, (교외) 10,500 → 11,150원 ▶ 교외 근로장학생 인원↑ (4.6 → 4.9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대출금리↓ (2.2 → 2.0%)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고졸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고졸 취업희망자	고졸 후학습자	고졸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3 졸업예정자에게 지급되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지원금액 인상 (300 → 4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지원인원 확대(9,000 → 11,2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중소기업이 청년을, 청년이 중소기업을 원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게 보탬이 되겠습니다

청년 채용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채용시 지급되는 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20 → 29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근속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25 → 34.2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 주요내용은 27p 참고

일자리 걱정없는 2020 경제정책방향

☑ 중장년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p>일자리 미스매치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센터내 40대 구직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설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를 확대하고 직종별(제조업 생산직, 서비스직)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
 <p>직업능력개발 기회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대도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을 통해 맞춤형 기술교육 가능 (현재 50~60대만 가능 → 40대 포함) ▶ 4차 산업혁명 대비 훈련기회를 확대 (선도인력 양성 훈련기관 선정시 40대를 많이 선발할수록 가점 부여)
 <p>고용·근로 인센티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 II에 참여하는 중장년층(35~69세)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퇴직 전문인력 400명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p>창업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40대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 지원 (현재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4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초기(3년내) 창업기업에 세무·회계비용 등을 지원(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연 100만원), (현재 청년창업기업만 제공 → 40대까지 확대) ▶ 퇴직한 40·50대에게 '전직창업농' 교육 과정 운영(1,600명) ▶ 40대 퇴직자에게 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동 참여 지원

☑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현장중심의 종합분석을 통해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20.1분기)

100세 시대의 든든한 동반자 2020 경제정책방향

☑ 나이는 숫자일뿐! 어르신 채용 확대, 정부가 함께합니다



재정 지원

- ▶ 어르신(60세이상) 채용시 지원금 증가(고령자고용지원금, 분기당 27 → 30만원)
- ▶ 정년 이후 고용 유지시에도 장려금 제공(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원)



세제 지원

- ▶ 고령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
(기업규모별 0~700만원 → 400~1,200만원)



판로 확대

- ▶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일자리 모델

- ▶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을 마련('20上, 연구용역 추진)

☑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늘어납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이 61만개에서 74만개로 증가

-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기간 확대(9개월 → 10~12개월)

☑ 돌봄서비스 사업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어르신께 필요한 돌봄기기(예 : 배회감지기)와 서비스(예 : 방문형 보건의로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지원을 확대
-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19년 75개 → '20년 100개) 등 인프라를 확대
-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기술 교육과정 강화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관리 시스템을 구축
- 돌봄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고('19년 260대 → '20년 800대) 로봇 및 보조기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돌봄기술을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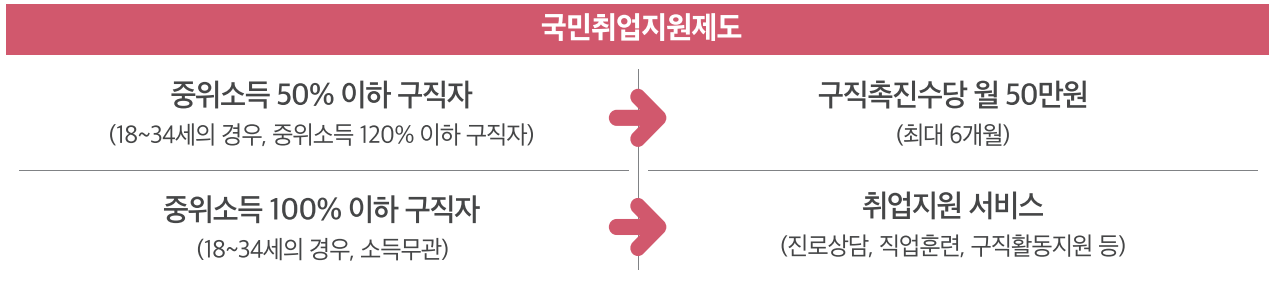
☑ 어르신들의 금전적 어려움도 덜어드립니다

- 기초연금액 인상(월 25 →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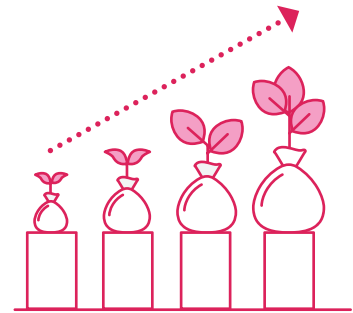
일자리·생계비 걱정 없는 2020 경제정책방향

☑ 일자리 구하기가 힘드십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 열심히 일하는 당신, 정부가 함께합니다

- ① 가족중에 중증장애인이 계신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 ② 일자리를 구해도 기초생활보장의 혜택 지속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계산시 근로소득의 70%만 반영)
- ③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을
최소 10만원 이상씩 지원(현행 3만원)



☑ 신용등급이 낮아도, 일자리가 없어도 햇살론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우세요



■ 햇살론17

-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 '19년 4천억원 → '20년 5천억원
- 700만원, 최대 1,400만원까지



■ 햇살론youth

- 미취업 청년·대학생 등 대상
- '20년 1천억원 신규 공급
- 연 600만원, 최대 1,200만원까지

☑ 통신·교육·주거 등 필수생계비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통신 ▶ 알뜰폰 5G 출시, 통신망 임차료 인하로 통신료 부담 완화



- 교육 ▶ 근로장학금 시급 인상(시간당 최대 10,500 → 11,150원)
-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 → 2.0%)
- ▶ 고교 무상 교육('19년 2학기부터 고3 시행 중 → '20년 고2·고3 → '21년부터는 전 학년)



- 주거 ▶ 전세보증보험 확대('19년 30조원)
- ▶ 신혼부부 맞춤형 공적임대주택(행복주택 등, 5.2만호) 및 신혼희망타운(1.5만호) 공급
- ▶ 1인 가구(청년·고령층) 등에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계획마련('20. 6월)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2020 경제정책방향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늘어납니다



- 신용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25만명)에 특례보증을 제공(총 5조원)
- 재해나 산업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확대(1.55조원)
- 자영업자와 혁신창업 기업에 대한 특별금리 대출 증가(기은, 2.7조원)

☑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을 살립니다

①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 육성

- ▶ 지역 관광지,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 15곳을 새로 개발
- ▶ 지역사랑상품권('19년 2.3 → '20년 3조원), 온누리상품권('19년 2.2 → '20년 2.5조원) 발행 확대



②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 조성

- ▶ 지역의 문화·유산·특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20년 140명, 총 44억원 지원)
- ▶ 쇠퇴한 상권을 쇼핑·커뮤니티·청년·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상권으로 탈바꿈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19년 누계 7 → '20년 누계 13곳)



☑ 지금은 온라인 시대! 온라인 판로를 열어드립니다



-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① 소상공인 전담셀러 매칭(2,000개사) ② 상품성 개선(400개) ③ 교육·컨설팅(5,000명) 지원
- TV 홈쇼핑·T-커머스('19년 200 → '20년 300개사) 및 V-커머스('19년 200 → '20년 1,000개사) 입점을 돕기 위해 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지원(17억원) 및 스마트 공장 도입 자금 지원(1,000억원)

☑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을 육성합니다



- 오래도록 꾸준히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지원(컨설팅, 교육, 금융 등)하는 백년가게 육성('19년 300 → '22년 1,000개)
- 보존가치가 있는 기능과 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명문 소공인을 지정하여 자금, 판로개척 등을 지원('19년 100개 → '20년 200개)



창업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2020 경제정책방향

☑ 혁신기업 창업,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 시제품 제작·마케팅 비용 등 초기 창업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1억원, 신성장분야 기업은 최대 1.5억원)
- 기술창업기업(TIPS 운영사 투자기업)에는 R&D 자금(5억원)과 사업화 자금(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1억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
- 핀테크 창업기업의 세금부담 완화(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AI 분야 창업, 단계별(창업교육·R&D·사업화 지원) 지원('20년 50개사)
-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64곳 추가 개소

☑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자금조달·사업화	M&A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단계기업에 자금을 공급 ▶ 예비유니콘 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하고 (기업당 최대 100억원), 신시장개척 전략수립과 실행 비용을 지원(기업당 최대 3억원) ▶ 도약단계(창업 3~7년차) 창업기업의 사업화 비용 지원을 확대(350 → 750개사, 1,27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권 희석 걱정없이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차등 의결권 주식(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발행 허용 ▶ 0.4조원 규모의 M&A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 인수합병을 지원

☑ 해외진출에 도전하는 창업가를 응원합니다



- ▶ 해외 스타트업 거점을 중심으로 현지 창업 생태계와의 네트워킹 지원
- ▶ 코리아스타트업센터(미국 시애틀, 이스라엘 등), 창업특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통해 VC 매칭 및 인큐베이팅을 지원('19년 200 → '20년 500개사)

☑ 재기를 꿈꾸는 벤처사업가를 도와드립니다

- ▶ 엑셀러레이터 투자연계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확대(8 → 16개사)
- ▶ 초기 사업화 자금조달, 시장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 추진
- ▶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채납액 가산금 면제·분할납부 허용(최대 5년)



